



電氣保安擔當者 小考

金 善 慶

大韓電氣協會 電氣使用合理化委員

우리나라는 至今 中進國을 넘어서 先進國隊列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企업체가 생존경쟁에 이겨 나가려면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없는 노력과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들 기술자가 노력하여야 할 일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시키는데 있으며 또 중간관리 등으로서 창조성을發揮하여自己 스스로는勿論下部職員에게進取의 氣象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管理者와下部직원이渾然一体가 되어努力함으로써 얻어지는成果가 곳 기업의 利潤이 되고 나아가서는 社會에還元하는源泉이 될 것이다.

社會的으로 볼 때 우리들技術者の責任은 生產性을向上시킴으로써企業을通하여 社會의發展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보아야겠다. 특히 法的責任을지고 있는電氣保安擔當者は自己가社會的으로必要不可欠한存在라는自負心과責任感을 충분히認識하고人間의인面에서도成長할 수 있도록 아울러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75年 新電氣事業法施行以前에는 產業技術의近代化가 이루어지는初期段階 以前이라電氣保安擔當者를電氣主任技術者라呼稱하고 그擔當業務도電氣技術全般의知識을 필요로 하여法의이나社會的으로 평가가 높아電氣技術者로서는 동경의

對象이었기 때문에檢定試驗에必死的으로應試하였고合格率도 매우低調하여一段合格되면큰榮光으로생각하였다. 따라서職場就業도選擇할수있을程度였으며就業後에도주야로知識技能의向上升에 힘써職責完遂에萬全을다하였다.

社會情勢의變遷과技術의發展에따라新電氣事業法이施行되고또國家技術資格法이‘施行됨에’따라法,規則監督官廳의行政도社會情勢의變遷에따라여러번개정되어工事計劃,申告等의對官廳手續도많이簡素化되었다. 그反面保安體制의確立를위하여保安規程의作成申告를義務化하도록規制하여設置者的自主保安體制의존중과責任所在를明確히하고있다.

i) 保安規程에는設置者從業員은電氣關係法令 및規程을遵守토록定하고組織에서는保安擔當者の職務를完全하게執行할수있도록機構組織이編成되도록하고施設자의義務로서는施設者와保安擔當者와의職務上의관계와立場을明記하고保安規程을改正할때는保安擔當者の참여立案決定을明示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現實的으로法에따라스스로定한規定等을충분히遵守하고있는가를살펴볼때社會의인與件에따른精神的인面의解弛等으로設置者保安擔當者모두가계획입안設計工事,檢查等에积极參與치않고設計者施工者에委任하고出願書

類에 날인만 하고 認可를 받기 위하여 使用前 檢查에 形式上 立會할 뿐이고 그後도 工事業者나 製作業者等에 委任만하는 名目的인 保安体制만 갖추고 있는 現狀은 없는지 疑心스러운바가 있다.

法的으로는 施設者は 總括責任者이나 電氣保安擔當者は 그 電氣設備의 모든 面에서의 최고책임자이고 나름대로의 技術的으로나 人間的으로나 職務完遂에 對한 責任과 實行力이 있고 아울러 自負心과 公心를 가져 法에서 委任받은 事項을 完遂하여야 할 것이다.

資格이란 그 所任에 對하여 滿點이라고 評價된것이 아니며 地位도 아니다. 技術的으로 그 責任을 맡겨도 되겠다는 最少의 基準으로서 社會의으로 맡은 바 職責을 다하고 있는 者만이 真實한 有資格者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職責을 通하여 社會의인 영향력 技術程度 貢獻度가 있어야만 주어진 자격을 뒷받침 해주는 평가라고 보아야겠다. 우리들은自己自身을 둘이켜 보아서 결코 실행이 따르지 않고서 가진 資格을 내세우거나 또는 技術的인 面이나 經營的인 面에서도 精神的인 허수아비가 되거나 主H的에서 벗어난 單純한 都給業者나 巡迴세일즈맨이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機會 있을 때마다 主張하는 「社會的 地位向上」도 普遍的으로는 地位란 學力, 技能, 人格, 統率力, 責任感 積極性 成果等의 要素를 고려한 社會的 活動能力等의 内部的인 自信感과 外部의인 認定의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技術的分野는 復合的인 장치들로서 復合保守管理의 綜合技術이 要請되는 技術者로서 電氣 電工技術은 물론이고 經營工學이나 機械, 土木, 建築, 化學, 消防, 安全, 公害 또는 事務系統分野도 幅넓게 工夫하여 復合的인 能力を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겠다. 따라서 이들 여러가지의 能力を 갖추려면 倍前의 努力과 分투가 要求된다고 본다. 이들은 좁고 깊은 專門知識이 아니더라도 幅넓게 自身의 專門領域을 中心으로 인접 關聯領域을 포합한 技術과 經營手法을 알고 이에 다시 邁進하고 豐富한 人間性을 加味하

여야 極甚한 生存競爭에 이겨나가리라 믿는다.

地位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려나가는 것이다. 技術的 地位를 維持해 가기 위하여는自身的 技術能力을 中心으로 하여 精神的要素가 뒷받침됨으로써 職場을 通하여 社會의 利益에 結付시키지 않으면 단순한 生計維持를 위한手段에 不過하여自身的 職責에 意義나 公心도 느끼지 못하고 無計劃의이고 하루하루를 그대로 넘기는 無事安逸한 人間일 수 밖에 없다.

II의에 對하여 成果를 올리는 힘은 能力이다. 그러나 能力만으로는 필요한 조건이긴하나 充分한 條件은 아니다. 充分한 條件이란 人間性을 基盤으로 하여 그 能力에 起動力 渗透力, 持續性 社交性 等을 주는 힘으로 이러한 힘을 “執念” 또는 “根性”이라 한다. 隘路나 失敗는 이 社會에서는 어디서나 부딪치는 것으로 이에 果敢히挑戰하여 不屈의 體志로 나아가는 것이 執念이다.

또 生覺하고 慎托도 必要하지만 몸소 부딪쳐 몸으로써 아이디어가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으로 思考力만으로는 不足하다. 思考力이라는 필요조건은 行動力이라는 充分한 조건에 의하여 活力이라는 現實의 힘으로 나타난다. 執念과 活力으로 事物을 처리하고 자신을 갖게 하는 것이 能力を 培養하는 것으로 이 能력을 “自信의 그릇”이라 보아야겠다. 바꾸어 말하면 執念과 活力이 欠如된 사람은 自信을 가질 機會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緣由로 하여 施設者와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責任있는 立場에서의 行動과 社會性을 인식하여 부딪치면 반드시 成果가 있으리라 確信하게 된다. 配電盤이나 變壓器等의 外觀만 쳐다보며 電氣器具의 特性說明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러한 技術者가 아닌 以上 우리들의 所信과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前記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電氣事業 法上의 保安擔當者制度를 보면 新電氣事業法와 國家技術資格法의 兩面規制를 받기 전에 1級 2級 3級의 3종류의 資格이 1級 2級으로 統廢合 됨으로써 不公平하였던 點과 自主保安体制로의 轉換에서 오는 問題點 電氣安全公社의 保安代行問題 또는 資格證의

量產等으로 우리들의 설 땅은 매우 좁아지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實施되고 있는 保安擔當者(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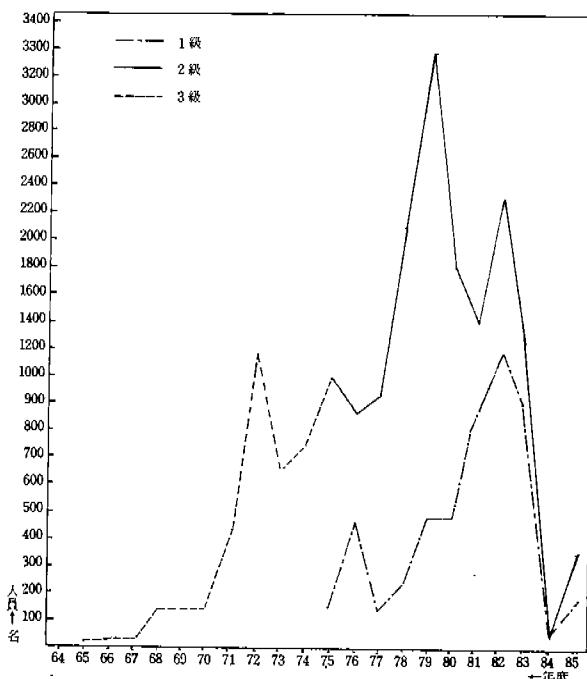
年度別 電氣技師合格者 曲線

年分 級數	合 格 者 數					備 考
	1 級	2 級	3 級	計	累 計	
1962	5	1	43	49	49	口帝時로는 진정合格者
63	2	3	15	20	69	
64	3	16	19	88		우리 나라最初試驗實施
65	1	67	68	156		
66	1	8	74	3	239	
67	13	155	168	407		
68	3	10	172	185	592	
69	1	27	176	204	796	
70	26	171	193	989		
71	1	3	434	438	1,427	
72	8	1,905	1,913	3,340		國家考試市道移讓
73		621	621	3,961		
74	5	756	761	4,722		
75	139	1,047	1,186	5,908		國家技術資格法施行
76	425	858	1,283	7,191		
77	137	921	1,058	8,249		
78	257	2,002	2,259	10,508		
79	483	3,339	3,822	14,330		
80	487	1,834	2,321	16,651		
81	805	1,438	2,243	18,894		
82	1,282	2,334	3,616	23,510		
83	913	1,323	2,236	25,746		
84	73	69	142	25,888		
85	192	337	529	26,417		

氣技師) 國家考試制度에 對하여 고찰하여 보면 1962 年 이후 1985년까지의 合格者數와 保用家增加推移 保安擔當業務方式 委任推移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2年度의 國家考試 地方移讓에 따른 문제점과 1975~1983年까지의 量產과 84年以後의 急激스런 減少現象은 심각한 문제

年度別 電氣技師合格者一覽



需用家增加推移 및 規模別 增加推移 保安擔當(代行) 業務方式 變化推移表

年度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總需用家口數	2,999,105	3,427,693	3,938,820	4,237,294	4,659,279	4,935,155	5,243,768	5,484,829	5,682,341	5,985,146
一般需用家數	2,990,635	3,417,069	3,927,235	4,223,641	4,644,003	4,913,979	5,221,244	5,459,708	5,656,388	5,958,600
自家用 500KW以下	7,645	9,560	10,460	12,214	12,949	18,454	19,633	21,974	22,692	23,074
電氣工 500KW以上	825	1,054	1,125	1,413	2,327	2,722	2,891	3,147	3,261	3,472
作物數 合計	8,470	10,614	11,585	13,653	15,276	21,176	22,524	25,121	25,953	26,546
個人選任個所	8,470	7,173	7,082	7,678	7,682	12,859	9,902	10,701	9,514	7,806
保安代行個所		3,441	4,503	5,975	7,593	10,917	12,622	14,420	16,439	18,740
保安代行占有率		32%	37%	44%	50%	48%	56%	57%	63%	71%

註 ※ 1980年까지의 保安代行 個所는 韓國電氣安全公社의 公表分에 의하였으며 그 以後의 個所數는 1979年에서 1979年에서 1980年까지의 伸張率14% 程度를 適用하여 計算한 數字임

資料 1983年 調査研究論文 大韓電氣協會

점으로 指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지나간 문제를至今 曰可曰否하여 보아야 아무 所得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混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기 때문에 抽象의이나마 基本的인 문제를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國家考試라면 적어도

1. 内容面이나 社會的 評價의 兩面에 걸쳐 보다 좋은 뜻으로 權威가 있어야 한다.

2. 多樣化하여 가는 社會의 要請에 對應할 수 있는 質의 向上과 量(有資格者的 數)의 適正數 確保가 필요하며 兩者の 均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質의 低下를 가져오지 않고 누구라도 親近感을 가지고 受驗할 수 있게 (合格하기 쉬운 것과는 다른) 되어야 한다.

4. 知識 經驗 創造力이 있는 即 實力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平等한 機會를 주어야 한다.

5. 校校를 졸업하였거나 校校를 다니지 않은 獨學者에 對하여도 向學心에 불타고 있는 者에 對하여는 登龍門의 길을 열어주어 資格을 얻고자 하는 者는 누구나 이 門을 거치도록 하여야겠다.

6. 知識 經驗이 豐富한 者(一般的으로 어느 程度의 年輪을 쌓은 者)에 對하여는 國家가 認定하여 그들의 知識과 經驗을 社會에 還元奉仕할 수 있는 制度를 만들어야 하겠다. 一般的으로 젊었을 때는 技術의 吸收時代, 나이가 들면 吸收한 技術을放出한다. 즉 教育을 하거나 顧問役割을 하고 컨сал트할 責任이 있다고 본다. 이는 老令化 社會에서의 老人이 삶에 價値을 느끼게 하는 것과도 相通하는 것이라 하겠다.

電氣協會는 電氣關係 各種團體를 為始하여 電氣保安擔當者 有資格者를 主体로 한 汎國家의인 電氣團體이라 앞으로의 發展은 이러한 모임을 主軸으로 많은 會員의 參與를 얻어 事業을 擴張하고 強力한 組職을 構築하여야 할 줄 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會員들은各自가 맡은 責任을 充實히 하고 相互間의 紐帶를 強化해 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昨年末 12月 12日 처음 實施한 保安擔當者 懇談會에서는 비록 적은 數字였으나 會員 서로가 여러가지建設的인 意見을 交換하여 隔意없는 討議를 하였다.

그 主된 意見을 간추려 보면

1. 法定教育問題의 改正
2. 保安擔當者와 兼任業體問題
3. 設計에 關한 問題
4. 會費納付 問題
5. 保安擔當者 選解任 問題
6. 法改正 問題
7. 電氣火災等 事故 問題
8. 其他 問題

等이 있으며 서로 진지한 意見을 피력하였다. 앞으로 與件이 주어지는範圍內에서 이제까지도 努力하였지만 더욱더 努力하여 하나하나 問題點 解決을 하도록 상호 다짐하였다.

글으로 筆者は 數10年間 電氣主任技術者 保安擔當者를 歷任하였고 現在도 電氣使用合理化 事業의一翼을 담당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는 새로운 設備를 如何히合理的으로 維持保守하고 또 汎國家의인 課題인 에너지 使用合理化事業에 副應하여 치열한 生存競爭에 이겨 나가려면 오로지 諒임없는 工夫와 努力を 게울리 하여서는 안되리라 믿고 努力하고 있다. 會員 여러분의 健闢를 빌며 頭緒敘는 小稿를 맷기로 한다. *

